

## 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2월 1주~2주)

### 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#### ① 폴란드 경제 동향

- 12월 폴란드 실업률 3% 기록, EU 내 최저 수준 유지(EUROSTAT)
  - 2024년 12월 폴란드 실업률은 3%로, EU 2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. 체코(2.6%)에 이어 폴란드와 몰타(각 3%)가 공동 2위를 차지, 반면, 스페인(10.6%)과 그리스(9.4%)는 EU 내 최고 실업률을 기록
  - EU 평균 실업률은 5.9%로, 전월 대비 0.1%p 상승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0.1%p 하락
  - 폴란드 통계청(GUS)은 다른 방법론을 적용해 12월 실업률을 5.1%로 발표(전월 대비 0.1%p 상승)
- OECD, 2025년 폴란드 GDP 성장률 3.4% 전망, 2026년 3% 예상(2/4)
  - OECD는 2025년 폴란드 경제성장률을 3.4%, 2026년을 3%로 전망하며, 인플레이션은 2025년 5%, 2026년 3.9%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
  - 폴란드는 EU 내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며, 1인당 GDP와 생활수준이 OECD 및 EU 평균에 근접 중
  - 2024년 폴란드 경제성장률은 2.9% 기록, 2025년 예산안에서는 3.9% 성장 기대
- 2024년 4분기 폴란드 주요 도시 주택가격 하락세 기록(Barometr Metrohouse & Credipass report)
  - 2024년 4분기 중고주택 가격은 대부분 주요 도시에서 하락: 그단스크(-6.3%), 바르샤바(-3.2%), 크라쿠프(-2.2%), 브로츠와프(-0.8%). 단, 우치는 1.6% 상승
  - 신규주택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 : 바르샤바(-1.2%)와 우치(-0.5%)는 하락, 그단스크(+3.6%), 크라쿠프(+0.8%), 브로츠와프(+0.5%), 포즈난

(+0.2%)은 상승

- 시장 전문가들은 “수요는 여전히 중앙은행 정책과 금리에 크게 의존 중”이라며, 새로운 주택 담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예측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
- 바르샤바와 크라쿠프의 연간 가격 상승률은 각각 +22.7%, +17.9%로 높은 편이나, 구매자들의 가격 인하 요구가 증가하며 거래 가격 간격이 벌어지는 추세임
- 2024년 12월 폴란드 수출, 전년 대비 2.8% 감소, 연간 수출도 1.5% 하락(KIG, 상공회의소)
  - 2024년 12월 폴란드 수출액은 240억 8,900만 유로로, 전년 동월 대비 2.8% 감소한 것으로 추정
  - 전월(11월) 대비로는 15.1% 감소했으나, 계절적 요인으로 2025년 1월 수출은 증가할 전망
  - 2024년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.5% 감소했으나, 2025년에는 7.0%, 2026년에는 9.9% 증가할 것으로 예상

## 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- 우크라이나, 3월 말까지 인플레이션 14% 예상됨(2.6)
  - 다닐로 헤트만체프(Danylo Hetmantsev) 의회 재정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중앙은행(NBU)이 2025년 1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14.3%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 언급함. 그는 현재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휴작, 에너지 비용 상승, 실질 임금 증가를 꼽았음
  - “가장 큰 영향은 전기요금 인상에서 비롯됨. 이는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”라고 언급
  -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2025년 말까지 8.4%로 낮아지고, 2026년에는 5%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됨. 이를 해결하기 위해 NBU는 이미 4.5%에 달한 할인 금리를 인상하고 있음
  - 헤트만체프는 그리브냐의 환율이 달러당 ₴45로 11% 하락할 것으로

로 예측하며, 2025년에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며, 대규모 금 보유고와 외환보유고, 외국 원조금, 그리고 NBU의 균형 잡힌 정책이 경제를 안정화 시킬 수 있다고 설명

○ EBRD,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에 60억 유로 이상 지원(2.6)

-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세르기이 마르첸코(Sergii Marchenko)는 EBRD (유럽부흥개발은행) 회장 오딜 르노-바소와(Odile Renaud-Basso) 부회장 마테오 파트로네(Matteo Patrone) 및 우크라이나·몰도바 전무이사 아르비드 튀르크너(Arvid Tuerkner)와 회담을 진행함. 이번 회의에는 우크라이나 재무부 차관인 올가 지코바(Olga Zykova)와 알렉산더 카바(Alexander Kava)도 참석함
- 마르첸코 장관은 2022년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 이후부터 2024년 말까지 EBRD가 우크라이나에 61억 유로 이상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, 이 중 25억 유로가 이미 수령되었다고 밝힘
- 2025년 2월 현재 EBRD의 공공 부문에서 12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, 총 대출액은 24억 유로에 달함. 이 중 11억 유로는 이미 확보됨
- 특히, 공공 부문 협력은 주요 국영 기업들의 유동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, 우크르에네르고(Ukrenergo), 나프토가즈(Naftogaz), 우크르잘리즈니차(Ukrzaliznytsia) 등의 기업을 지원하는 데 총 1,190백만 유로가 투입되었음

○ 독일 기업의 중앙 및 동유럽 투자 선호도에서 우크라이나 3위 차지(2.6)

- 독일 CEE 비즈니스 전망 2025 연구에 따르면, 133개 독일 기업 중 22%가 중앙 및 동유럽으로 생산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, 55%는 2030년까지 이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
- 독일 기업들의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는 폴란드가 1위, 루마니아가 2위, 우크라이나가 3위를 차지함. 35%의 기업이 올해 우크라이나에 투자할 계획이며, 2030년까지 41%가 추가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음
- 현재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21%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투자를

진행 중이며, 우크라이나는 EU의 새로운 에너지 허브, 대체 생산지, IT 및 아웃소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

○ **우크라이나, 2024년, 공공예상규모가 GDP의 87.9%에 달함(2.6)**

- 우크라이나의 국가 및 보증 부채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.98조 흐리브냐(약 1,661억불)에 달함. 이 중 외채는 5.05조 흐리브냐(총 부채의 72.3%)로 약 1,201억 달러였고, 국내 부채는 1.93조 흐리브냐(27.7%)로 약 460억 달러임
- 2024년 예상 GDP 대비 우크라이나의 공공 부채 비율은 87.9%에 달한다고 재무부는 보고.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국가 및 보증 부채는 1.46조 흐리브냐(207억 달러) 증가했으며, 이는 주로 국제 파트너들로부터의 장기 양허성 대출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전했음
- 2024년 우크라이나 예산의 가장 큰 자금 출처는 EU 지원이었음. EU로부터의 우대 대출로 인한 부채는 6,005억 흐리브냐(111억 달러) 증가함
- 공공 부채의 만기는 증가하고 비용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음. 2022년 이후, 부채의 가중 평균 금리는 1.5배 낮아졌고(7.79%에서 5.09%로), 만기는 6.27년에서 12.26년으로 두 배 늘어났음.
- 부채 구조는 58%가 국제 금융 기구와 외국 정부로부터의 양허성 대출, 28%는 국내 시장에서 발행된 증권, 12%는 외채, 2%는 상업 은행 및 금융 기관에서 차입한 대출로 구성됨.
- 2024년, 재무부는 정부 채권 발행을 위해 201회의 경매를 진행했으며,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6,400억 흐리브냐를 조달

**3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**

○ **Orlen과 Northland Power, 발트해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 착수(2.6)**

- Orlen과 Northland Power는 폴란드 발트해에 위치한 Baltic Power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을 시작함. 78개의 모노파일 중 2개가 설치되었으며, 100미터 구조물 위에 15MW 풍력 터빈이 설치될 예정임

- Baltic Power는 총 1.2GW의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, 2026년에 완공되어 연간 약 4,000GWh의 무배출 전력을 생산할 계획임
- Orlen 그룹은 추가로 3개의 해상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임
- EU-UA 연대의 길 도로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컨소시엄 첫 회의 루블린에서 개최(2.5)
  - 2022년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시작한 연대의 길(Solidarity Lanes) 프로그램은 EU와 우크라이나 간 주요 국경에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, 인프라 용량, 상호 운용성, 서비스 효율성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
  - CUPT와 폴란드-우크라이나 컨소시엄이 이끄는 프로젝트는 S12 고속도로 건설, Okopy 세관 터미널 설계 작업, 국경 통관을 위한 IT 솔루션을 포함하며, 우크라이나 측은 Yagodyn/Dorohusk, Rava Ruska/Hrebenne, Krakovets/Korchova 국경에서 도로 인프라에 중점을 둠
  - 회의에서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, 감사 절차 및 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논의되었으며, 이 프로젝트는 국경 횡단 용량을 증대시키고 TEN-T 도로망 내에서 환경친화적인 국경 도로 연결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
- Grupa Azoty, 미국 Gas Partners와 가스 공급 협력 의향서 체결(2.6)
  - Grupa Azoty는 미국 Gas Partners와 미국산 가스 공급 협력을 위한 의향서(LOD)를 체결. 이는 잠재적 협약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의 첫 단계
  - American Gas Partners는 미국 내 액화천연가스(LNG) 환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며, 이는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 가능성을 크게 확대할 전망
  - Grupa Azoty의 Hubert Kamola 부사장은 “가스는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, 공급 다각화를 위한 시장 기회를 꼼꼼히 분석 중”이라며, “안정적인 인프라와 전망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파

트너와 협의 중“이라고 설명.

- American Gas Partners의 Pierce Kirby 회장은 “미국의 독립 가스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플랫폼은 Grupa Azoty에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의 가스 공급을 제공할 것“이라고 강조

#### ○ Grupa Azoty, 폴리체 항구 지역 개발 협약 체결(2.3)

- Grupa Azoty의 자회사인 Zakłady Chemiczne Police는 서포모제 주정부, 폴리체 지역 및 시청, 폴리체 항구 관리처와 협약을 체결해 항구 지역 개발에 나섬
- 협약의 주요 목표는 460헥타르 이상의 항구 지역을 개발하고, 공동 투자 제안을 마련하는 것. 이는 Grupa Azoty의 항구 인프라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
- 현재 433백만 유로의 EU 자금을 지원받아 철도 노선 437호선 건설이 진행 중이며, 이는 항구의 환적 능력과 인터모달 기능을 강화할것으로 전망
- 서포모제 주정부는 폴리체 항구를 중심으로 독특한 경제 허브를 구축하고, 물류 및 산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. 이는 지역 노동 시장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항구 개발은 화학, 연료, 철강, 해양, 재생에너지, 물류 산업 등의 기업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

#### ○ 그루파 아조티, 우크라이나 시장에서 비료 공급 계약 체결(2.3)

- Grupa Azoty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농업 생산 및 수출 기업인 Agroprosperis Group과 비료 공급 계약을 체결
- Grupa Azoty는 “우크라이나와 같은 대규모 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제품 범위와 신뢰성 있는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다“며, 향후 상업 활동 확대와 물류 솔루션 개발을 통해 시장 잠재력을 입증할 계획
- Agroprosperis Group\*은 “10년간 우크라이나 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공급업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

것“이라며, Grupa Azoty와의 협력을 통해 41개 농장과 파트너 농가에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

\* Agroprosperis Group은 농업 자재 유통, 금융 지원(Agroprosperis Bank), 물류, 수확 및 수출 등 우크라이나 농가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

○ Orlen, 미국 시장에서 1,250백만 달러 규모 채권 발행 예정(2.3)

- Orlen은 미국 시장에서 1,250백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. 이는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채권 발행
- CEO Ireneusz Fafara는 “투자자들의 관심이 기대를 뛰어넘었으며, 채권 발행 규모의 3배 이상의 수요가 있었다“고 밝힘
-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재생에너지, 천연가스 추출, 가스-증기 터빈 건설, 대체 연료 등 전략적 투자에 사용될 예정
- 이번 채권 발행은 Orlen의 자본 조달 전략의 일환으로, 다양한 자원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며, 2035년까지 총 3,500억~3,800억 즈워티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며, 이번 채권 발행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조치방안으로, 투자 예산 중 상당 부분(2,700억~2,900억 PLN)은 예비비로 수립, 실지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음. 유지 보수 비용은 770억~880억 즈워티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
- CEO는 “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, 이를 극도로 신중하게 관리할 것“이라며,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
- 2035년까지 EBITDA LIFO를 530억에서 580억 즈워티로 증가시키고, 2025-2035년 누적 EBITDA LIFO를 5,000억~5,500억 즈워티로 달성할 전망, 2030년까지 순부채/EBITDA 비율을 2.0 이하로 유지할 계획이며, 2035년까지는 0.5 이하로 점진적으로 감축 예정. 또한, 점진적 배당 정책을 통해 2025년 주당 배당금을 4.30 즈워티에서 4.50 즈워티로 인상할 예정. 운영 현금흐름의 25%까지 추가 배당 가능

○ Panattoni, 그레이터 폴란드에서 910만 유로 투자 자금 확보(2.6)

- Panattoni는 포즈난 인근 Głuchowo에서 진행 중인 Panattoni Park

Poznań XIV 물류 프로젝트의 첫 단계에 대한 자금 조달을 완료, Santander Bank Polska로부터 910만 유로의 대출을 확보함

- 이 프로젝트는 A2 고속도로와 S11, S5 간선도로 인근에 위치하여 물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, 63,000m<sup>2</sup> 규모의 현대적 시설로 개발될 예정임. 첫 번째 단계인 14,000m<sup>2</sup> 규모의 건물은 현재 건설 중이며, 2025년 초에 Gasa Group 및 Markat Plus가 첫 입주자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
- 2024년 폴란드의 창고 및 산업용 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경제 변화에도 강한 회복력을 입증. Panattoni는 지난해 창고 및 산업용 부동산 매각 규모가 375백만 유로를 돌파했다고 발표

#### ○ 폴란드, 유럽 물류 중심지로 부상, Panattoni 창고 매각 호조

- 2024년 폴란드의 창고 및 산업용 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경제 변화에도 강한 회복력을 입증. Panattoni는 지난해 창고 및 산업용 부동산 매각 규모가 375백만 유로를 돌파했다고 발표
- 주요 거래로는 Panattoni Park Poznań XI(이커머스 전용 시설, 9,000만 유로 이상), Zgorzelec 물류 공장(Arete Investment Group 매입), City Logistics Warsaw IV(바르샤바 내 39,000m<sup>2</sup> 규모 물류 단지) 등이 포함
- 폴란드 내 창고 및 산업용 부동산 매각은 전체 부동산 시장(약 50억 유로 규모)의 25% 이상을 차지하며,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본을 끌어들이는 주요 시장으로 자리매김
- Panattoni는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며,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창출해 폴란드로의 투자를 촉진 중

\* 폴란드 물류 시장의 매력 : ① 폴란드는 유럽 내 전략적 위치, 발달된 인프라, 효율적인 교통망, 주요 유럽 시장과의 근접성으로 유럽 최고의 물류 허브로 부상. ② 투자 펀드들도 폴란드를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투자처로 점점 더 선호 ③ Panattoni의 Michał Stanisławski Capital Markets 공동 책임자는 "국제 자본의 활동이 증가하며, 폴란드는 전략적 위치, 현대적 시설, 숙련된 인력 덕분에 여전히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"이라고 강조.

#### ○ CTP, 포즈난 인근에 18ha 부지 매입(2.5)

- CTP는 약 52,000m<sup>2</sup> 규모의 창고 및 생산 복합단지를 건설할 예정



이며, 다양한 임대 형식을 제공함. 건설은 2025년 2분기에 시작되며, 첫 번째 건물은 2026년 초에 완공될 예정임

- 이번 투자 프로젝트는 Wielkopolska 지역에서 CTP 폴란드의 첫 프로젝트로, 폴란드의 주요 비즈니스 중심지 중 하나인 포즈난 지역에 위치하며, 멀티 테넌트 모델로 개발할 예정으로 최소 500 m<sup>2</sup>에서 1,500m<sup>2</sup>까지 다양한 면적을 지원할 예정

#### ○ EU 정상 회담, 국방 재정 지원 방안 논의(2.3)

- EU 정상들이 브뤼셀에서 국방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음.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사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가운데 회의가 에그몽 궁전에서 개최
- 공식적인 회의 결론은 독일의 연방 선거 후에 나올 예정임
- 19개 EU 국가들은 EIB를 통한 국방 재정 지원 메커니즘을 지지하지만, 헝가리와 중립국인 오스트리아, 아일랜드는 공동 재정 지원에 반대함

### 4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#### ○ 트럼프 행정부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접근 방식 변경(2.7)

-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-우크라이나 갈등의 복잡성을 인식하고, 이를 해결하는 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함. 미국 및 우크라이나 정부의 소식통에 따르면, 행정부 내에서 압박 수단과 방향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.
-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(Mike Waltz)와 우크라이나 특사 키스 켈로그(Keith Kellogg)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협상 시작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함.
- 반면, 일부 인사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여서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.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접근이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이는 러시아에 대한 사실상의 항복이라고 지적함.
- 키스 켈로그는 “필요하다면,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이어진 유혈 사

태를 끝내기 위해 모든 미국의 권력 수단을 사용할 것“이라고 언급함

- 동시에 일부 외교관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계속 점령하는 한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

#### ○ 키스 켈로그, 우크라이나의 핵 지위 회복 가능성 “미미하거나 제로” (2.7)

- 미국 우크라이나 특사 키스 켈로그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“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“고 평가함. 이는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이 불발될 경우, 핵무기를 보유하여 안보 보장을 받겠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된 발언임

- 켈로그 특사는 “솔직히 말해,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걸 알고 있다“며,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함

- 또한,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계획이 뮌헨 안보 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, “평화 계획을 발표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다. 하지만 그건 다음 주에 해당 발표는 일어나지 않을 것“이라고 명확히 밝힘

- 대신 켈로그 특사는 뮌헨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하며, 다른 국가들의 입장을 확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임

- 아울러 NATO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지출을 증대하고, 전쟁 비용을 더 큰 비중으로 분담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

#### ○ 젤렌스키, 푸틴과의 대화가 열려 있다고 밝힘(2.6)

-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의 유일한 길이라면 푸틴 대통령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. 단, 우크라이나, 러시아, 미국, EU 와 함께 대화를 추진할 의사를 표현

- 젤렌스키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영토를 회복할 수 없고, 수백만 명의 생명을 잃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. 그러나 군사적, 외교적으로 영토 회복은 가능하다고 언급했음

- 또한, NATO 가입이 외교적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경로라고 강

조했음

-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'매우 건설적인 대화'를 했다고 언급하며 전쟁을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
-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은 열려 있다고 하지만 젤렌스키를 'illegitimate'이라고 주장하며, 이를 계속 고수. 모스크바는 또한 젤렌스키가 푸틴과의 협상 금지 법안을 철폐하고 "show interest (협상에 대한 관심을 보일 것)" 을 요구했음

○ **우크라이나, 유럽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미국 자원을 저장할 가스 저장시설 제공(2.16)**

- 안드리 시비하(Andriy Sybiha)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영국 외무장관과 함께,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지하 가스 저장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, 이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
- 시비하 장관은 "우크라이나는 뛰어난 지하 가스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, 이는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의 일환으로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. 이 가스는 우리 저장시설에 주입되면 충분히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임"이라고 언급했음
- 또한, 시비하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LNG를 구매하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, 특히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언급했음
- 그는 "이는 이번 세기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로,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임"이라고 덧붙였다

○ **40MW 풍력발전소, 국영은행지원으로 리비우 지역에 건설 예정(2.5)**

- Oschadbank와 에코옵티마(Eco-Optima) 그룹은 리비우 지역에서 총 39.9 MW 용량을 가진 소칼스카(Sokalska)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으며, 독일 회사 NORDEX의 풍력 터빈 7기를 설치할 예정임
- 해당 프로젝트는 연간 약 1억 2200만 k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

예상되며, Oschadbank 4,000만 유로의 건설 비용을 지원하고, EBRD와의 협력을 통해 2,300만 유로 이상의 green letter of credit을 제공할 예정임

- 프로젝트 건설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,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.
- 에코옵티마는 EBRD로부터 첫 번째 민간 대출을 받은 회사로, 현재 216.8MW 용량의 18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, 이 중 88.5MW는 풍력발전소가 차지함

#### ○ 우크라이나, 동맹국들과 함께 광물 자원 개발에 적극적(2.6)

-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미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자원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가 이를 개발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, 우크라이나는 이를 동맹국들과 함께 개발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으며, 이는 공정하다고 덧붙여 발언
-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이미 논의했다고 언급하며, 그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 환영 의사를 표명하며, 만약 러시아가 이 지역을 통제하면 다른 국가와 기업들이 점령할 것이라고 설명
- 포브스는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 가치를 총 14.8조 달러로 추정했으며, 폴타바 지역만의 자원 가치는 7,9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함. 이 지역에는 약 300개의 탐사된 광상으로 석유, 가스, 철광석, 화강암, 모래, 점토, 비쇼파이트 등의 자원이 부존. 폴타바 지역은 우크라이나 가스 응축액 생산의 60.5%, 가스의 43.4%, 석유의 10.1%를 차지

#### ○ 우크라 재건 : 율리아 총리 투자 지원 메커니즘 발표(2.6)

- 율리아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은 프랑스, 이탈리아, 독일을 포함한 EU 여러 국가의 대표들과 만나 경제 협력 강화, 유럽 투자자 유치,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에 대해 논의했음
- 율리아 장관은 EU와의 협력이 우크라이나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 강조하며, 지난해 EU로의 수출이 총 247억 달러의 수출액 중

59.5%를 차지했다고 언급했음. 또한, 유럽 기업들에게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에 투자할 것을 촉구함

-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은 민간 기업에 추가적인 기회를 창출할 것이며, 재건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, 전쟁이 투자 금지령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말함
- 현재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투자 지원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음: ① 산업단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및 관세 혜택, 인프라 개발 비용 보상 ② 1,200만 유로 이상 투자 프로젝트에 최대 30%의 보조금 제공 ③ 93억 유로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보조금, EC 보증, 기술 지원 포함 ④ 전쟁 위험 보험

#### ○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(Dnipropetrovsk) 지역에 782억 UAH 투자 산업 건설(2.5)

- 우크라이나 정부는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 지역에 새로운 산업 단지인 '조프티 보디(Zhovti Vody)'를 등록함. 이 산업 단지는 하이테크 및 혁신 분야에서 약 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임
- 2025년 등록된 두 번째 산업 단지로, 우크라이나의 101번째 산업 단지로 기록되며, 총 면적은 10ha, 예상 건설 면적은 41,857㎡임
- 주요 산업 분야는 화학 및 화학 제품 생산(비료, 플라스틱, 합성 고무, 페인트, 바니시), 합성 섬유 생산, 대체 에너지, 정보 및 통신 활동, 과학 및 기술 활동
- 산업 건설에 대한 총 자본 투자금은 약 782억 UAH이며, 개발사는 97억 UAH를 대출을 통해 확보, 정부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예정. 또한, 향후 잠재 투자자들을 통해 646억 UAH를 유치할 계획

#### ○ 폴란드 기업들, 우크라이나 재건을 준비 중(2.5)

- 폴란드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특사인 파벨 코발은 폴란드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준비하고 있으며, 이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, 건설 및 항공 산업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

- 폴란드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, 폴란드 산업 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 분야가 있으며. 주요 분야 중 하나는 창문 생산부문이라고 밝힘. 폴란드 기업들은 독일과 덴마크 제조업체들과 EU 시장에서 경쟁 중이므로, 우크라이나 시장으로의 확장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함

## 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### 1] 종합계획수립(마스터플랜,MP) 사업

#### ①-1 키이우 지역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(1단계)

##### < 사업 개요 >

- (용역사) 유신, 삼정회계법인, 한국교통연구원,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무소
- (용역비) 1,122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3.12.29.~2024.11.22.(330일)
- (주요내용) 키이우 지역 교통중심의 공간개발 및 재건계획 수립,
- (추진현황) '23.12월 타당성조사 직접지원 사업 선정  
'24. 2월 우크라이나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 
'24. 9월 국내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시행  
'24.10월 초청연수 개최  
'25. 4월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- (주요동향) 국내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시행(9.27), 우크라이나 공무원 방한초청 연수 실시(10.28~11.2), 향후 자문회의의('25.2)를 거쳐 국내외 최종보고회('25.4) 개최 예정

#### ①-2 키이우 지역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(2단계)

##### < 사업 개요 >

- (용역사) 한국교통연구원, 유신, 톰스
- (용역비) 960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3.5.27.~2024.11.22.(180일)
- (주요내용) 키이우주 교통모델링 구축, 스마트모빌리티 전략 수립
- (추진현황) '24. 3월 타당성조사 직접지원 사업 선정  
'24. 7월 우크라이나 현지 교통현황 조사  
'24.10월 중간보고회, 초청연수 개최  
'25. 4월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- (주요동향) 국내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시행(10.23), 우크라이나

공무원 방한초청 연수 실시(10.28~11.2), 향후 자문회의('25.2)를 거쳐 국내외 최종보고회('25.4) 개최 예정

## ② 6대 선도 프로젝트(참고)

### 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

#### 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##### 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업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3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  
'20. 10월 금융종결  
'25. 3월 PAC(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) 발급

- (주요동향) 발주처 준공검사 완료, 대주단 성능 시험 준비 중
  - 준공검사 기간 중 생산된 제품 판매 진행 중

**참고**

**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**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</li> <li>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</li> </ul>	KIND LH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지 착수보고('24.2월)</li> <li>• 1단계 중간보고('24.9월)</li> <li>• 2단계 중간보고('24.10월)</li> <li>• 초청연수 실시('24.10월)</li> <li>• 국내외 최종보고('25.4월)</li> </ul>
우만 스마트 시티 마스터플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</li> </ul>	KIN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4월4주)</li> <li>•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</li> </ul>
보리스 필 공항 현대화 재 향등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</li> </ul>	한국 공항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</li> <li>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</li> <li>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용역사 선정 및 과업착수('24.12월)</li> </ul>
부차시 하수처리 시설 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</li> </ul>	환경산업 기술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('25년 上)</li> <li>* 환경부 F/S 지원사업</li> </ul>
댐 재건 및 현대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</li> <li>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</li> </ul>	수자원 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·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5.10월)</li> </ul>
철도 노선 고속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우 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(919km) 중 우크라 구간(580km)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</li> </ul>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('25년)</li> </ul>